

■ 괴운(槐雲) 칼럼



계묘년(癸卯年)을 맞으며

- 국운 융성과 개인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길 -

권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어느새 계묘년(癸卯年) 신정과 구정(설날)도 지났다. 먼 저 지난 임인년을 되돌아보고 계묘년 새해의 소망을 담아 본다. 역술가들이 임인년을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해서인지 나라 안팎으로 몹시 혼란스럽고, 3년간 지속된 코로나 19의 여파로 모두가 힘들고 우울하게 보냈다.

국제적으로는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으로 10만여 명의 사상자만 내 고도 전쟁의 총성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작년 2월 독일 솔트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기존질서를 위협한 "역사의 전환점(Zeitenwende)"이라 했듯이 냉전이후 국제질서를 흔들었으며 핵전쟁 공포와 글로벌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최악의 인플레이션 불리는 '인플레이션 데믹'으로 기록적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이 이어졌다. 미국도 40년 이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덮쳐 연방 준비제도가 9개월 만에 금리를 4.5%까지 올렸으며, 전 세계 자본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가상화폐의 겨울'이라 불릴 정도로 투자자들에게는 잔인한 한해였다. 비트코인이 60% 이상 폭락하고,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치도 폭락하여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도 파산했다.

또한 세계 곳곳에 폭염, 가뭄, 홍수, 한파, 폭설 등의 이상 기후가 심각한 한해였으며, 1952년 2월 왕위에 올라 즉위 70주년 행사를 마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96세)과 세계 축구 영웅 브라질의 펠레(82세),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95세)가 세상을 떠났다.

국내적으로도 몹시 혼탁한 한해였다. 작년도 전국 교수가 뽑힌 우리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사자성어가 첫째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괴불개(龜而不改)'였으며, 두 번째가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욕개미창(浴蓋彌彰)'을 선정한 것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우선 작년 3월9일 대선에서 보수층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식과 더불어 청와대를 떠나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작년 6월21일에는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해 누리호에 실린 위성 1발 궤도에 안착하여 지상과 교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2월 30일에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서도 성공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경북 봉화에서 지하 190m에서 9일 만에 광부 박정희씨가 무사 생환하는 기적을 이루었고, 9%의 확률을 뚫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하였다.

그러나 10월 15일에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서비스 20여종이 먹통이 된 대혼란에 이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헬러윈 행사에서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국제적인 여파로 금리, 물가, 환율의 3고 위기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경제와 사회 안정에도 큰 혼란이 있었으며, 대장동 수사를 비롯한 여야의 정치싸움 등으로 어수선한 한해였다.

그리고 남북관계도 심상치 않았다. 북한은 윤석열 새 정부에 계속적인 도발을 시도하였으며, 지난 9월에 '핵 선제공격'을 범죄화하고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작년에 역대 최대 70여발의 미사일을 도발하였으며, 11월에는 사거리 1만5천km로 추정되는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여 6,100km까지 울리는 데 성공했다. 12월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8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53발, 30일에도 3발 등 39차례 70여 발을 발사했다. 이어 12월 26일에는 북한 군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강화 파주 지역을 5시간 이상 정찰활동을 하였는데, 우리 군은 100여 발의 대공포를 발사하고도 제지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안보불안감을 심어주었다.

다음은 올해의 소망이다. 올해 계묘년은 '검은 토끼(黑卯)'의 해라고 한다. 토끼는 두뇌가 명석하고 지혜로운 동물로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찾아 나선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8년 계묘년에 은조왕이 백제를 건국하여 진취적인 삼국시대가 열렸고, 1363년 계묘년에는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왔고, 1963년 계묘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어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을 이룬 '국운융성의 기운'이 넘치는 해였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2023년에도 국내의 안보환경이나 경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무척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무력위협이 더욱 증가되고, 국내 진보 보수 간의 정파싸움도 지속되고, 에너지 수입증가로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너무 높고, 부동산의 침체와 고물가 고통을, 고금리의 3고 현상으로 경기침체도 조속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1월1일 윤대통령은 TV생방송을 통한 2023년 신년사에서 전 세계의 경제침체를 예상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하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외교 중심을 경제에 두고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기지로 민간과 시장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각계 지도층에 보낸 연차장에서도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하였다.

2023년 올 한해도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 모두가 영리한 토끼처럼 모든 지혜를 발휘하고 힘을 합쳐 개인의 행복과 나라의 융성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기원한다. 안동권문 가정에도 새해 행운과 만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속의 한방건강

그대로 지킬까, 바꿀까?



권희완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인양지역총친회원
3측관절질원 골프아카데미 원장

1. 다짐과 새로운 결심
해나 달이 바뀌 때 또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 그 동안 했던 일이나 습관에 대하여 더 잘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바꿔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노화되어 몸에 부상이 발생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져 통증이 찾아지게 되면, 건강을 회복 또는 증진해야겠다는 생각을 더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잘 개선해야 할 요소들도 있을 것이다. 그 중 빠르게 호흡하는 것과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은 잘 유지해야 할 습관이며, 잘못된 호흡이나 자세로의 걸음걸이는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의 내성이 약해지면 사소한 것도 불편해지고 심지어 쉽게 분노감도 드러나게 된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유지해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에 대해 결정과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나와 주변사람들에 대한 '감사함과 배려'는 내성의 근원이며 참된 사랑의 실천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핵심요소나 가치에 대한 정의로 하고 되고 반성 내지는 성찰을 하게 되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는 에너지는 더 밝고 강해질 것이다.

2. 자원의 보전과 개발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인 환경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각 자원을 포함한다. 이러한 환경과 자원에 대한 감사와 그 보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 증진하는 기반이 된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중요한 가치나 요소를 흔들림 없이 계속 보전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개선 내지는 변혁할 것인가이다.

현재 우리는 환경이 보유하고 있는 지상의 천연자원은 물론 지하자원을 우리는 최대한 보존하고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은 자원에 대한 감사와 배려에서 비롯되고, 자원의 절약으로 나타난다.

자원의 쓰임은 생명의 유지뿐만 아니라 질 높은 삶의 효용에도 있다. 생명의 유지에는 기본적인 자원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그 자원에 대한 효용적 만족에는 더 많은 자원이 사용되고, 소위 사치와 사치품에는 이를 넘어서는 자원의 낭비가 있게 된다.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 조그만 상처가 있거

나 힘이 나도 폐기시키는 자원의 낭비로 우리 지구와 공동체는 보다 가혹해질 수 있다.

어느 자료를 보니,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치품 수요가 1위를 달리는데, 그 주된 요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욕에 있다고 한다. 멋있게 보여주는 것도 나름 의미 있지만, 보다 값지게 보이게 되는 참된 관점의 분위기를 구성하고 조성하는데 개인 스스로가 일조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것이다.

그 변화에 잘 순응하여 바꾸는 것도 성과이지만, 그 변화에 흔들림 없이 잘 유지하는 것들도 중요한 덕목인데,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바람직한 가치관은 자원의 보전과 사용에 대한 심리적 효용이 균형적으로 행해지게 유도한다.

3. 초치일관
스스로의 결심이던지 누구와의 약속이던지, '일단 정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은 도덕적 표현이다. 여기에 '어떠한 일'은 미래의 예측하지 못한 거의 모든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다. 이렇듯 약속이나 결심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높은 사람이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세월의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밝은 빛을 발하기에 값진 것처럼, 모진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널리 이롭게 하는 처음의 마음을 간직하고 유지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는 높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은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 생각과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말이다. 다만 어린 시절은 어쩔을지라도, 오늘부터 남아있는 삶의 기나긴 여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을 세우고 세파의 흔들림에도 잘 유지하게 되면, 그 얼마나 복날까!

4. 변경하고 조정하는 덕목
세상을 살다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이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각의 조직은 그 조직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그 의무는 곧 약속이다.

그러나 보면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동시에 다른 의무와 충돌하게 될 수 있고,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정



하게 된다. 때로는 이것은 기꺼이 조정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성과나 바람직한 진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결정한 사항을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잘 변경하고 조정하는 절제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다.

5. 발전으로 가는 성숙한 조화
발전으로 가는 사회는 미래를 그리며 현실에서 나를 약속을 하거나 규정을 정하지만, 그 시점의 약속의 실현은 미래에 있는 것이고, 시간이 흘러 누군가에게는 과도히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큰 이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구성원의 생각이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에 걸 맞는 약속의 변경이 큰 무리 없이 더 나아가 작은 무리도 없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 이달의 책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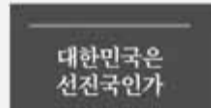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부제가 붙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라는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보하느냐, 남미국가처럼 퇴보하느냐 하는 그 길목에 서 있다"며 "사회갈등, 노사 대립의 악순환, 무너진 법치주의,

대기업 패러기 등 성숙하지 못한 사회상으로 '한강의 기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서 "오랜 관료 생활과 경제계에 몸담으며 생각한 아이디어와 우리 사회에 주고자 했던 해법과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권 상근부회장은 청와대 산업통신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모두 청와대 근무를 한 바 있다. 2017년 2월 전경련 상근부회장에 취임했다.

권태신 편집국장

서관과 경제정책비서관, 국무총리실장,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노태우·

기(氣)란 어떤 것인가?

기(氣)는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만물을 생성 육성시키는 근원의 힘을 가진 자기(氣, 에너지)이다. 기는 우주공간에 없는 곳이 없으며 무형의 능력자라고도 한다. 하늘에는 전기(天氣) 즉 양기(陽氣), 햇볕, 땅에는 지기(地氣), 물에는 수기(水氣)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물체는 자기 모양대로 기를 발생한다. 추악한 물체는 흉상스러운 기를 발생하고 미묘한 물체는 순기를 발생한다. 또한 이 기는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風則散) 물은 만나면 멈춘다(水界止) 이 기는 우주공간을 순환하며 타 물체에 응기(應氣)도 해주고 자력이나 타력의 도움을 받아 응축되기도 한다. 응축된 땅은 양명(陽明)하고 비취(肥萃)하고 박삭(薄削)하지도 않다.

이 기를 주체로 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풍수지리학이다. 미신이 아닌 자연과학이다. 이 지기(地氣)는 인간생활에 도움도 줄 수 있고 피해도 줄 수 있다. 이를 동조작용(同調作用)과 간섭작용(干涉作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지기는 0.5 카오스(카오

스란 힘을 측정하는 단위)의 힘을 발생시킨다. 0.5 카오스의 힘이란 지구 표면에서 15m 정도까지의 높이로 지상으로 올라가는 힘이다.

보통 수중의 나무가 약 15m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 주거생활에 아파트 7~8층(약 15m)까지가 좋고 더 이상 올라가면 힘이 점점 약해진다. 이 지기는 인체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산소를 원활하게 유통시키는 역할도 한다.

땅의 구조는 외형적 모습에 따라 입체 에너지 구조와 판(板) 에너지 구조, 또 선(線) 에너지 구조로 대별할 수 있다. 중국이나 아프리카 대륙, 유럽 등은 대부분 판 에너지 구조체이며 우리나라는 선 에너지 구조체이다. 판 에너지 구조체인 중국보다 선 에너지 구조체인 우리나라 땅은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기(에너지)가 중국보다 훨씬 많다.

예를 들면, 선 구조체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중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비교하면 맛과 영양 등이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

많이 뒤떨어진다. 중국산 인삼이 우리나라 인삼보다 약(藥) 성분이 약 10배나 약하며 중국산 고사리 3개의 맛보다 한국산 고사리 1개의 맛이 더 좋다고 한다. 이는 중국 땅의 지기(地氣) 에너지보다 우리 국토의 지기(地氣)가 지표상보다 더 강하게 많이 표출되는 증거다. 그래서 한반도는 서기(瑞氣)가 어린 땅이라고 한다. 이 기는 무형이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며 색깔도 없다. 기의 유무는 직감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우리 인간이 이 기의 원리를 잘 알아서 이용하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이를 연구하여 인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도 또한 과제이며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이를 풍수에서는 탈신공개천명(奪神功改天命)이라 한다. 탈신공개천명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신(神)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빼앗아 운명을 바꾼다는 뜻이다. 풍수를 미신이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자연과 우리 인간의 삶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선대로부터 면면히 전해오는 풍수지리학을 재조명해 보았으면 한다.

전 경주풍수지리학회장
심산壽山 권오록權五錄

2023년 1월 정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12.29. ~ 1.31.
총 납부자 17명
지사·지국 2곳

총 1,210,000원

단위: 원

이름(순)				
권기색(경기고양) 30,000	권영양(경기양평) 30,000	권오현(대구달서구) 30,000	권위영(서울용산) 30,000	권추현(합천) 30,000
권대포(경기용인) 30,000	권오봉(대구) 30,000	권오화(영덕) 30,000	권인규(정읍)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성기(금산) 30,000	권오수(서울구로) 30,000	권옥선(대구) 30,000	권재욱(경기화성) 30,000	인양총친회 300,000
권영범(산청) 30,000	권오추(안동) 30,000	권용수(영주) 30,000	권중수(안동) 30,000	경산총친회 400,000

* 연간 정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광고, 독자투고 안내

안동권씨 정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는 안동권문의 소통공간입니다. 정보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기고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광고, 독자투고 연락처
▶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E-mail: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 정보 대금 납부 계좌번호 :
033237-04-006941(국민)

안동권씨 대총회